

6월의 기도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다
(시편 130:1-2)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4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4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DCEM 성회안내

2014년 후반기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하여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많은 해외성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가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이, 김양호, 나인규, 박우택,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 목사, 안희순, 오주봉, 이규현, 이형춘, 원소선, 정낙숙, 최인철, 한태성, 함석숙, Esther Han, Marcia Helena Silva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큰 고통을 당할 때

미국의 폴 마이어는 27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익의 50%를 기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기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일찍 거부가 됐던 사연을 들어보면 큰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회사를 찾아다녔는데 57개의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면접에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 못나왔고 키도 작고 인물도 못난 그가 뽑힐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구직할 결과 변두리 한 증권회사에 취직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세일즈 대회 상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육, 컴퓨터, 금융 등 4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큰 성공을 거두어 27살에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성공비결을 묻는 신문기자에게 “기도하고 찬미하므로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왔다. 내가 캄캄한 밤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된 데에는 고통의 밤에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리고 찬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국민,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두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조용기 목사 초청 아르메니아 성령콘퍼런스

“성령님을 모시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틀간 2만 여명 참석, 성령체험·신유간증 넘쳐



아르메니아 예레반에 위치한 생명의 말씀교회(Word of life church)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조용기 목사 초청 성령콘퍼런스’가 6월 4~5일 교회 본당과 다른 장소 3곳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이틀간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성령콘퍼런스는 아르메니아 최대교회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들은 물론 주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아르메니아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연합한 기적의 성회로 기록됐다.

현지관계자들은 “기적은 조용기 목사가 아르메니아를 방문한 것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와 인근 국가에서 달려온 선교사와 성도, 몇 시간 전부터 나와 성회를 기다린 성도,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달려온 성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데리고 온 성도 등 성회장은 시작 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실 길이 예비되

고 있었다.

이번 성회에는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DCEM 사무총장) 김용준 목사(순복음도봉교회) 최명우 목사(순복음강남교회) 권경환 목사(여의도순복음시흥교회) 김중복 장로(외무행사분과위원장) 김영도 장로(4차원영성글로벌포럼회장) 이종찬 장로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성령콘퍼런스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이틀 동안 마가복음 5장 25절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4차원의 영성과 믿음에 대해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세로워졌고, 치료받고 거룩해졌다. 그리고 축복받았다. 이것을 꿈꾸고 믿어야 한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며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대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성도들은 아르

메니아어로 “미드크(생각), 예라장크(꿈), 하바트(믿음), 호스크(말)”이라고 따라 말하며 노트에 받아 적었다.

다음날 조용기 목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설교하며 “광야에서 빌립은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안드레는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내어놓아 우리들을 다 먹일 수 있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을 강조했다. 설교에 앞서 순복음강남교회(담임 최명우 목사) 두나미스 워십팀이 찬양에 맞춰 아름다운 한국전통무용을 선보였다.

조용기 목사의 아르메니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의 말씀교회 아르투스 시모난 목사가 몇 년간 꿈꾸며 기도하다가 작년 7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유럽콘퍼런스에서 만난 조용기 목사에게 부탁해 이번 성령콘퍼런스가 이뤄졌다.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중략]...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 35~41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는 누구나 삶속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두려움으로 쓰러지거나 혹은 믿음으로 승리하거나 그 두 가지 상황을 언제나 체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기지 못할 상황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며 인생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돼 있습니다. 마치 하루에 한 번씩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세계와 영의 세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물질세계는 기하학적으로 말하면 일직선과 평면과 입체적 세계입니다. 일직선은 1차원이고 평면은 2차원이고 입체는 3차원입니다. 그 이상의 차원은 인간의 말로써는 형용할 수가 없는 고차원적 세계입니다. 인간은 원래 3차원 이상의 세계를 인지하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알고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3차원까지는 물질세계입니다. 그러나 물질세계를 뒤덮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으니 그것은 영적인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있고 그 배후에 승패를 결정짓는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4차원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집을 열심히 지어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지 않으면 헛수고이며,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절대로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물질과 재산도 시간이 지나면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4차원의 영적인 능력으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2. 풍랑에 시달린 제자들과 다스리신 예수님

풍랑에 시달린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물질적인 3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음으로 풍랑에 밀려가고 밀려오며 두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3차원적인 풍랑의 세계가 휘몰아치니 3차원에 속한 인간은 그 속에 휘말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은 4차원적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4차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도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4차원적 명령에 3차원적인 상황과 현상은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고 기록합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보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우리도 운명을 다스리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입술의 고백입니다.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입술로 말하면 우리의 말을 통해 환경이 듣고 변화되고 순종합니다.

3. 인간의 실존

우리는 이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 선생 중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는 학자요, 바리새인이요,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

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방문해서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말은 안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 들이면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영이 살아나면 영적인 세계의 일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을 통해 대화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 대화하고 믿음을 통해 대화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대화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령을 통해 우리는 생각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꿈을 통해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성을 가진 새로운 언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과 아름다운 미래의 꿈과 창조적인 믿음과 신앙고백은 우리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속한 나라와 세계까지도 살기 좋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면 그것이 변하여 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속에 깊이 품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아르메니아성회 이모저모

최초의 기독교국가 아르메니아, 생명의말씀교회 최대교회로 성장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은 어디에서나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산을 볼 수 있다. 아라랏산은 현재 터키령이지만 대홍수 후 방주가 머문 후 노아의 가족이 아르메니아 일대에 정착해 ‘노아의 땅’이라고 불린다.

아르메니아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 바돌로매와 다대오가 이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곳으로 전해진다. AD 301년 성그레고리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313년)보다 12년이나 앞섰다. 아르메니아는 위치상 계속 침략을 당해왔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이 희생된 대학살과 터키가 100만 명을 살해한 2차 대학살을 겪었다. 또 구소련연방의 공산당 지배아래 억압을 당했다. 하지만 아르

메니아는 환난 중에도 1700년 동안 기독교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라랏산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믿음을 지켜온 것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아르메니아 종교는 아르메니아정교회로 통칭되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97% 정도를 차지한다. 오순절 교단 등 개신교는 1%에 불과하다. 정부는 개신교 등 다른 종단 및 종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정교회를 고수하면서 명목상 ‘최초 기독교 국가’의 타이틀만 이어가는 이곳에 오순절교단 소속인 생명의 말씀교회가 매년 400여 명의 새신자가 들어오는 최대 교회로 성장했다.

아르메니아 생명의 말씀교회의 강사로 초청

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6월 5일 구소련 연방국 주요 목회자들과 오찬을 나누며 환담했다. 이날 아르메니아 오순절교단 총회장은 한국의 오순절운동과 부흥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했다. 생명의 말씀교회 당회장 시모난 목사는 한국교회의 믿음과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싶다고 했으며, 어떻게 가난했던 나라가 믿음을 통해 부유한 나라가 됐는지 아르메니아도 경험하고 싶다고 전했다.

